

최남선의 워싱턴 어빙 번역과 ‘문범(文範)’ 기획^{*,**}

김미연^{***}

- I. 서론
- II. 번역의 배경과 조건 : 메이지 시기 워싱턴 어빙의 수용 양상
- III. 번역의 의도와 맥락 : 문(文)과 문예의 역할과 작용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워싱턴 어빙의 수용사를 고찰하기 위해 그 시작점인 『청춘』에 실린 번역에 주목하였다. 최남선은 어빙의 『스케치북』에 실린 「저자의 신상(“The Author’s Account Himself”)과 「책을 만드는 법(“The Art of Book-Making”)」을 선택하여 ‘문범(文範)’이라는 기획으로 묶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0780)

** 이 논문은 <제1회 한국학 페스티벌: 대전환의 시대, 한국 학문의 미래>(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1.24~27) 중 <신진연구자 워크숍Ⅳ 다이내마이트 K-문학: ‘혼재(hybridity)’에서 ‘존재(existence)’로, 모방과 차용 이후의 문학 연구>(김미연, 안혜연, 임세화, 최은혜, 최진석, 홍덕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성균관대 안혜연 선생님, 세미나 팀,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FOUR 박사후연구원

어 번역하였다. 우선, 조선어로 번역된 배경을 논의하기 위해 메이지 시기 일본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일본에서는 근대문학을 이끈 주역들이 어빙의 글을 다수 언급하고 번역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문인들은 어빙의 글이 지닌 문체의 유려함에 주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어빙의 글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도 탁월하여 영어 학습 교재로도 사용되었다. 메이지 시기 어빙의 인기는 최남선의 번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이 번역 기획에서 문장과 문체의 모범은 선결된 조건이었다. 또한, 미국의 발전사에서 문예가 중요하게 작용된 사정은 식민지 조선의 중차대한 과제인 문명으로의 도약에 참조가 되었다. 최남선이 번역한 어빙의 글에는 외부의 탐색과 내부의 발견이라는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었다. 어빙이 문학을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발견했듯, 최남선 역시 지식을 재편하고 민족과 세계를 마주하는 방법으로 문학에 집중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빙의 글은 『청춘』의 독자에게 문체의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자 최남선에게 자기 행동의 확신과 당위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주제어

번역, 최남선, 워싱턴 어빙, 『스케치북』, 『청춘』, 문범(文範)

본고는 근대문학 장(場)에 유입된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1783~1859)의 초기 수용사를 검토하여 맥락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910년대 『청춘』에 번역된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어빙의 글은 근대문학 장에 여러 차례 유입되었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번역된 텍스트에 한정하면(<표 1>), 『청춘』의 번역(1~2),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의 번역(3~5), 1920년대 번역된 텍스트(6~9)로 구분할 수 있다. 『신한민보』에 실린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 1)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번역된 어빙의 텍스트를 대략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98(초판 1975), 347~348, 435쪽과 김병철, 세계문학번역서지목록총람, 국학연구원, 2002, 8~9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기할 점은 태서문예신보 (1~2, 1918.9.26~10.13)에 실린 세계 문호 어 선의 실연담 이란 글의 실체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2호에 “Broken Heart”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스케치북 에 실린 상심(“The Broken Heart”) 과는 내용이 다르다. 다만 구로이와 루이코()가 만조보() 에 연재한

『스케치북()』(1820)에 수록된 글을 원작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번역 주제, 시기,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에세이와 소설이라는 갈래의 차이에 따라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인 논의를 위해 본고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인 동아시아의 수용 양상, 특히 메이지 시기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식민지 시기 어빙의 수용사에서 첫 장을 장식한 『청춘』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은 식민지 시기 문학장에서 워싱턴 어빙의 텍스트가 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시 적 작 이기도 하다.

『소년』에서 『청춘』에 이 기까지 최남선이 세계문학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로 지식과 문학을 대중 독자에게 전 한 사실은 려 있다. 최남선은 대문 스토이를 위시하여 조 선 스위프트, 대 포, 토 위고, 세 스, 초서 등의 작 을 번역하여 이 ‘근대지(知)’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학의 사 적 제도 라는 발 을 만들었으 근대문학의 장과 재 경을 구 했다는 가를 는다. 그중 『청춘』의 간 부터 이어 ‘세계문학 ’은 19세기 유 문학에서 발하여 중세로 러 라가는 방식으로 『미제라 』, 『부 』, 『실 원』, 『 』, 『터 리 이야기』의 으로 구성되었고 ‘세계문학’의 위상을 부여 은 작 들인 만 다 로 면모를 춘 까 에 그간 집중적인 조 명을 아 다.

(1904.3.28~4.1.)와 유사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 ひと の , , 1915, 193~222 으로 확인). 메리 셸리(Mary W. Shelley)와 어빙의 이야기(

, 1907)를 구로이와 루이코가 개작한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이에 관한 논의는 추후를 기약한다.

- 2)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소년 , 청춘 의 문학 사적 역할과 위상 , 대동문화연구 4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22~260쪽.
- 3) 전용숙, 세계문학의 탄생과 의 문학적 기획 , 우리말글 59, 우리말글 학회, 2013, 397~423쪽; 김준현 청춘 의 ‘세계문학개관’ 저본에 대한 검토 (1): 최남선과 마쓰우라 마사야스(), 사이 SAI 24, 국제한국문학문화학

‘세계문학’을 로 하고 『청춘』을 살펴보면 듯 선 이 과 제 목이 등장한다. ‘문범(文範)’이라는 지로 구성된 ‘어빙 선’의 글이 그것인 , 4 와 6 에 연 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일 의 기획으로 라 필요가 있다. 문범 기획에 실린 글은 단 두 편, 「내가 유로 에 만유(漫遊)한 동기(動機)」(4 , 1915.1)와 「서적제조법」(6 , 1915.3)이다. 두 글 의 원저자는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으로, 원작은 『스케치북』의 서문 인 「저자의 신상(“The Author’s Account Himself”)과 「책을 만드는 법(“The Art of Book-Making”)이다. 『청춘』에서 수행된 번역은 1899년 1월 30일 『한성월보』의 「소학만국역사(小學萬國歷史)」에서 어빙의 이 이 된 이래, 작 과 함 조선어로 번역된 첫 번 사례이다. 이러한 사 실은 의 연구에서 번역의 저본까지 논의되었다. 은 아사 와사부로(浅野和三郎, 1874~1937)의 『 (스케치북)』 상 (1901)을 번역 저본으로 제시했고, 실제 교해본 결과, 분석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텍스트의 두 장면을 교하면 다 과 다.

회, 2018, 9-41쪽; 박진영, 편집자의 탄생과 세계문학이라는 상상력, 번역가 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출판, 2019, 221~235쪽 등.

- 4) 5호의 결실()로 인해 4호와 6호 두 차례라고 제시했지만, 연속성을 보건대 5호에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5) ‘북아메리카 연합국 사()에서 문장가()로 소개되었다. 김병철,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상, 을유문화사, 1980, 11쪽.
- 6) ワシントン ア ピング , 스케ッチブック , 1901에 수록된 の の 과 이 저본이다.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347~348쪽.

7) ワシントン ア ピング , の の , 앞의 책, 1~2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https://dl.ndl.go.jp/info:ndljp/pid/896983>

8) 내가 유로바에 만유()한 동기(), 청춘 4, 1915.1, 128쪽.(대부분의 한자는 한글로 바꾸었으면 현대어로 수정하였다.); 이 부분의 현대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옛날부터 낯선 곳에 가서 이색적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곳의 풍속과 관습을 관찰했다.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시 부터 행을 하면서, 고 에서도 사람들이 그다지 발 을 기지 는 장소나 미지의 을 수 이 하 , 자주 부모님을 정시 고 도시 관원들의 주 를 두 이 려주 했다. 이 고 철들 이 되어 나는 관찰 위를 다. 그리하 는 날 후에는 자주 근교를 아다 다.”(워 어빙, 역, 어빙, 자신을 말하다 , 스케치북 , 동서문화사, 2020, 1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was always fond of visiting new scenes, and observing strange characters and manners. Even when a mere child I began my travels, and made many tours of discovery into foreign parts and unknown regions of my native city, to the frequent alarm of my parents, and the emolument of the town crier. As I grew into boyhood, I extended the range of my observations. My holiday afternoons were spent in rambles about the surrounding country.”(Washington Irving, “The Author’s Account of Himself.”, , London: John Miller, 1820, pp.3~4. UC 리 소장본)

9) ワシントン ア ピング , , 앞의 책, 143~144 .

(가)와 (나)는 「著者 身 上」과 「내가 유로 에 만유한 동기」의 부분이다. ‘平生’, ‘風景’ 등의 은 단어가 포 되 일역본에서 어린 시을 ‘髻髮 往時’로 번역한 것과 하게 ‘편발(髻髮)적부터’라는 로 다. 또 다 일역본의 경우 이 어구를 “少年時代” 로 는 이는 원작의 표 (when a mere child)과 유사하지만, 최남선의 번역본과 교했 을 는 차이가 나는 방식이다. ‘休暇’는 ‘ 일(空日)’로, ‘半日’은 한나

10) 서적제조 , 청춘 6, 1915.3, 87쪽; “세상에 나는 청 수의 출판 현 을 들 다보면, 슥지만 라 을 할 수가 다. 신의 저주에 의해 대체로 인간의 두 는 모 는 것이 되어 린 한 , 이 계도 은 책이 라 세상에 나 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아 래도 석연치 은 이 들었다. 인간은 인생 행로를 나아감에 라 신기한 일을 만날 기회가 점점 어들게 마 이다. 아 리 탄할 만한 일이라도, 그것은 어김 이 우 하 은 일에서 된다는 사실을 기 문이다. 그 나는 이라는 대도시를 아다 다 가, 에 서적 제작과 관 된 수수께 같은 한 부분을 들 다 수 있는 기회를 게 되었다. 그리하 이제까지 내내 수수께 로 남아 있었 문제가 장 린 것이다.”(위 어빙, 책을 만드는 , 앞의 책, 104쪽.)

“I have often wondered at the extreme fecundity of the press, and how it comes to pass that so many heads, on which Nature seems to have inflicted the curse of barrenness, should teem with voluminous productions. As a man travels on, however, in the journey of life, his objects of wonder daily diminish, and he is continually finding out some very simple cause for some great matter of marvel. Thus have I chanced, in my peregrinations about this great metropolis, to blunder upon a scene which unfolded to me some of the mysteries of the book-making craft, and at once put an end to my astonishment.”(Washington Irving, “The Art of Bookmaking”, , pp.151~152.)

11) ワシ ン アア ング , , 스케 ち ブ ク , , 1914, 2 .

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지만, 다 구 인 ‘山野 跋涉’한다는 표 은 조선어에서도 동일하게 나 다. 다만, 최남선은 제목에 있어서 원 작이나 일역본과는 상당히 다 방식을 택했다. 「저자의 신상」 대신 「내 가 유로 에 만유한 동기」는 독자 입장에서 여행과 된 이야기로 예 상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방법으로 작된다.

(다)와 (라)는 「서적제조법」의 번역이다. 일역본과 조선어 번역본에서 가장 에 는 점은 “天性鈍 人間 頭腦”, “ 성이 (鈍)하게 사 의 두 ”라는 표 이다. 이 문장은 원작에서 신[Nature-인용자]의 저주에 의해 대체로 인간의 두 가 모 이 되었 에도 구하고 다 의 책을 하고 있다는 맥락인 , 여 일역본에서 주로 ‘Nature’를 ‘자 연(自然)’으로 번역한 것과 리 아사 와사부로는 ‘ 성(天性)’으로 고 이를 따라 최남선 역시 은 어 를 사용했다.

이러한 기획의 제목이기도 한 ‘문범(文範)’이라는 용어는 신문 의 『시 문독본(時文讀本)』(1916.1 초 , 1918.4 정 보)을 리게 한다. 최초의 근대적인 문범 입문서이자 “한글 문의 문범(文範)을 마 ” 했다고 가되는 『시문독본』에는 교 적인 글부터 최신의 과학 지식, 경구나 문, 논 , 우 , 실용 작 과 정신 수양에 이 기까지 다양한 내용과 갈 래의 글이 수록되었다. 또한 신문 에서 발행한 지에서는 ‘글 기’ (『아이들보이』), ‘ 어리’(『 』), ‘ 상문예’(『청춘』) 등의 을 마 해 문범(文範)을 제시하고 문범의 모색을 독려한 것으로 려 있다. 여 기서 다 『청춘』의 ‘문범’은 『시문독본』보다 일 년 선 기획이라는 점 에서 주목을 요하 , 이 기획에는 오로지 워싱턴 어빙의 글만 제시된 것 도 미로 지점이다. 최남선이 미국 문학을 번역하여 제시한 ‘문범’이

-
- 12) 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 과 문학 언어 , 동악어문학 54, 동악어문 학회, 2010, 17쪽.
 - 13) 박진영, 문장 지 시문 본 ,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명 , 소명출판, 2013, 126~127쪽.
 - 14) 보드래, 앞의 논문, 31쪽.

란 인지, 『청춘』에서 시범적으로 ‘문범’을 기획한 『시문독본』에서 보다 다양한 구성의 입문서를 편 한 것은 아닌지 하는 문도 제기해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최남선과 『청춘』에 한 번역연구는 상당히 적되었지만, 어빙의 글로만 구성된 ‘문범’ 기획에 주목한 사례는 매우 드 다. 또한,

이래로 이 번역·연재에 대한 고찰이 면 하계 이 어지지 다. 워싱턴 어빙이라는 작가가 소한 까 이기도 하고, 미국의 작가와 작 이 수용된 양과 의 면에서 중을 차지하지 기 문일 것이 다. 그 에도 최남선이 어빙의 글을 선택한 이유는 일지, 은 우발 적인 번역은 아 었을지 하는 의문이 자연스 게 발 할 수 에 다. 따 라서 본고는 근대 초기 문학 장에 번역된 어빙의 텍스트와 그 맥락을 분석하여 『청춘』이 제시한 근대와 문명을 향한 도정의 한 단면을 탐색하고 자 한다.

문학사에서는 본 미국 문학의 시초를 워싱턴 어빙의 『스케치북』에 실린 「 (“Rip Van Winkle”）」(1819)로 본다. 그 이전에도 작가들과 문학작 은 있었지만, 「 」이 초 기 미국이 정체성의 란을 을 ‘미국인의 원형’을 제시하면서 등장했다는 이유이다. 「 」의 주인 ‘ ’은 나 하고 실적인 인 로서, 문명적이고 적 이 자유로 정신을 구하는 상 으로 려 있다. 자민

15) 이 현, 청춘 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 과 문학 , 한국문화 43, 장 한국학연구원, 2008, 339쪽, 주 41에서 언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프린(Benjamin Franklin)으로 대표되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여 자수성가하는 리드(Richard)은 실지향형의 인이나 근점약의 청교도 정신과는 대조되는 주인들의 시조가 ‘인 것이다. 어빙이 조한 ‘은 미국 문학에서 리과은 자유구형인의 조상이 되었으며 미국 문학의 신적인 인물이다. 20년 동을 자다가 어보 미국이 이미 독했다는 「」의 이야기는 민간 설가 되기도 했다. 이 텍스트는 으로 색되어 19세기부터 50 이상 연으로 상연되어 성을 고, 구전 전통에 스 들어 수 세대에 친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전설인 것 아들이게 되었다. 한편의 미국을 의인 하여 이 과, 전설을 부여하는 어빙만성한 사은 었다고 가된다.

어빙의 작작에는 유의 다양한 문학자가 중요하게 참조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나 「리 할로우의 전설」은 리스토프마란트(Christoph Martin Wieland)와 리스(Baron Riesbeck)의 『독일 기행()』을 기으로 작된 것으로 연구되었다. 어빙이 유에 있을 스인의 아메리대정과 된 다의

16) 이 문단과 이하 워 어빙의 문학사적 위상은 서린 스, 박역, 미국의 문학, 주한미국대사관 보과, 2004, 96~98쪽; 자모, 미국문학사, 신아사, 2008, 86~87쪽; 정지인, 이의 글, 워 어빙, 정지인 역, 함라 2, 생의나, 2007, 256~258쪽; 김성, 문학의 명장면: 현대 영미문학 40, 에 파, 2017, 137쪽; 존, 명병 역, (존) 근대의 탄생 1, , 2014, 114쪽; 민, “Rip Van Winkle” and “The Legend of Sleepy Hollow” by Washington Irving, 한국근대영미소학회 편, 미국소 명장면 모음집, 신아사, 2004, 32쪽; 신현, 워 어빙(Washington Irving), 스케치북(), 한국영어영문학회 편, 미국 근현대소 : 워 어빙부터이래까지, 한국문화사, 2017, 3~19쪽; 리티, 정유선 역, 의 도서관: 호메로스에서 케인스까지 99으로 는 3,000년 세계사, 생 정거장: 출판, 2017, 306~309쪽; 김미현, 기원의 서사: 워 어빙의 립, 미 국학논집 49:1, 한국아메리카학회, 2017, 23~45쪽; , 워 어빙의 립 : 미국인의 정체성과 ‘미국적’ 스토리, 영미문화교육 18:1, 한국 영미문화교육학회, 2014, 5~27쪽을 고하였다.

문서가 되었다. 마드리드에서 범한 자를 하 집필에 수한 결과로 나 『리스트 스의 과 여행』(1828)은 미국과 유 양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19세기가 지나가기 전까지 175 을 하여 되었다. 이 작 은 작인 『그라나다 정 연대기』(1829), 『스 동 들의 여행과 발견』(1831)과 마 가지로 역사와 구가 된 방식으로 지 은 만적 역사소설이라고 리는 장 에 해당한다고 려 있다.

초기 미국 문학의 중요한 특 중 일부는 계 독 한 ‘ 은’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미국인의 정체성을 정의하 나 그 신 조에 주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대 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 , 교, 언어, 인 의 다양한 형 를 할 ,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나 문 적으로 결코 정된 이 아 었고, 는 신의 가 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서 어빙은 작 의 소재로 미국 역사의 가장 적인 장면, 신세계의 발견, 국가의 영 인 첫 번 대통 , 서부 탐 등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어빙의 작 은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 역사에 살아 는 명 을 어 어 신 국의 정신을 구 하려는 신적인 의 결과 로 인식되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어빙은 당대 다 문필가들과 리 정치로부터 해방된 글 기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어빙은 독자와 자신에게 을 주기 위한 글을 작했다. 실 에 적용하고 교 적인 내용을 증시하 당시 토에서, 오로지 을 위한 글을 다는 것은 신선한 이었다고 한다. 어빙은 마 트 인(Mark Twain)으로 대표되는 미국적 유 와 (Oliver Wendell Holmes)와 로 (James Russell Lowell) 등이 사용한 세 된 도시 의 위트를 구보다도 저 선보인 장본인이었다. 그는 형 식적이고 한 문체의 수필 대신 편 하고 기 수필을 다. 소설, 에세이 외에도 『트리히 보 의 세계의 시작에서 란드 조 의 까지 의 역사』(1809), 『 스의 여행과 』(1828), 『조지

워싱턴의 『(1855~1859) 등 역사서와 전기 등을 집필했고, 역사 기
에 대한 도 시도했다. 적으로 어빙의 작 들은 미국 단편소설의
모범이자 미국 문학을 성하게 만 심상과 원형들을 도입했다고 가
된다.

이러한 어빙의 대표작인 『스케치북』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유
명한 작이요, 중학 의 독 ” 로 리기도 했다. 은 도로 언급
된 것은 아 지만 ‘ 독 ’로 리게 된 배경에는 일본에서의 유행과 영
향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하도 ’ 만(灣)에서 배 하나
가 어 로 간지 모 게 어 일이 있었는 그 배 고 (을) 친
구에게 란 인지 란 인지 어 고 해가 가고 해가 와서 년이
되는지 년이 되는지 모 고 을 다는 이야기가 ‘어빙’의 ‘스케치북’
에 있고” 에서 보듯 수록작인 「 」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은 “와싱 · 어빙’이라면 구나 ‘스 · 북’을 하다시

17) 이 에 어빙이 1807년 간한 건 ()에서 최초로 을 ‘고담
(Gotham)’ ‘소의 ’이라는 이라 다. ‘고담’은 날까지 만화,
영화에서 자주 용되고 있다. 1808년에 재정 으로 간된 건 는 현재
주 스 드모어 대학에서 발행되고 있다. 한, ‘트리 보 ’라는
명으로 출간한 의 역사 는 에 정 한 란드 이민자들의 사회를
풍자한 미국 문학 최초의 코 문학이라고도 리 , 이후 ‘ 보 ’라는 단어
는 란드 이민자의 후 인 를 일 는 일 명사가 되었다. 스와
마 가지로 어빙은 래된 크리스마스(“Old Christmas”) 를 해 다 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고, 영국에서의 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어
진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풍습을 지지했다. 1812년 의 역사 개정판에서
추가된 단 들은 로스 개 을 발전시 다. 그는 날 우리가 고 있
는 는 로스의 모습을 만들어 다고 전해진다. 어빙은 주재
미국 사의 서기직을 기도 했으 , 스페인 사를 역임하였다(신현 , 앞의
글, 3~19쪽; 리 티 , 앞의 책, 306~309쪽). 어빙이 스페인 사를 역임한
일은 영로가 1930년대 기사에서 리기도 했다. “미국으로 말하면 ‘워
빙’(함 라와 스케치북의 작자())이 서 아() 사직에 있었고”(수주
(), 문예 쓰, 문사와 교관 생 (3), <동아일보>, 1933년 10 10일,
3쪽)

18) 미국의 문예 , <동아일보>, 1925년 6 22일, 3쪽.

19) 동서양 기인() 사() , <동아일보>, 1924년 9 11일, 2쪽.

유명한 작(作)”이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구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어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가였는지 아닌지 식자에서 국한되어 알려진 작가와 작가가 있었는지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 아마도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선어로 번역된 도보다는 조은은 범위에서 작가와 대표작이 대중에 인식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

1920년대에는 간헐적으로 어빙의 이름이 명되기도 했지만, 1910년대는 사정이 다르다. 서에서 제시한 것과 이 『청춘』과 『신한민보』의 번역과 『서문예신보』의 글을 제외하면 어빙의 이름을 기가 지

그다면 근대 초기, 어빙의 텍스트는 일역본, 중역(中譯)본, 원작을 통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작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시미 두고,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저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 1872년 4월 22일 『신보(申報)』에 「 (“Rip Van Winkle”)이 「일수년(一睡七十年)」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은 미국소설이 중국어로 번역된 첫 사례로 가된다. 원작에서 주인공이 20년 동안 것과 리 중국어 번역에서는 70년으로 있었고, 여러 장치가 중국식으로 된

20) 김안서, 문호의 고 (), <동아일보>, 1926년 12월 28일, 3쪽. 김은 다 글에서도 어빙을 언급하였다. “어빙이 작가와 연 ()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세의 아작()으로는 익스어의 , 로르의 보바리 부인, 어빙의 립, 보카치의 카메론, 트의 사, 포의 대아 (), 스티의 지 박사와 하이드 ()”(김안서, 작가의 정력(), <동아일보>, 1926년 9월 1일, 6쪽)

21) 가 1930년대의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을 아 수 있다. “자기의 생명이나 내기한 것 사적 력으로서 부를 다 고 과 한 용기로 인하여 이상하고 음의 을 보기에 으르도록 심진기()하는 야말로 ‘어빙’의 치로 그 으면 하에 기보다 사람의 를 용 음할 것이 이것이다.”(김병, 시세() 이야기 (14), <동아일보>, 1932년 2월 21일, 4쪽); “미국 해방의 영 ‘아 라함 ’이 시 북미 지부장이었고, 시인으로 유명한 ‘ 과 어빙의 작 에 주인 이카트크 인 역시 회원이었다.”(박 호, 년 후의 나, <조선일보>, 1935년 2월 22일, 4쪽) 기서 가리 는 바는 스케치북 에 실린 리 할로우의 전 (“The Legend of Sleepy Hollow”)의 주인공 인 이카보드 크 인(Ichabod Cran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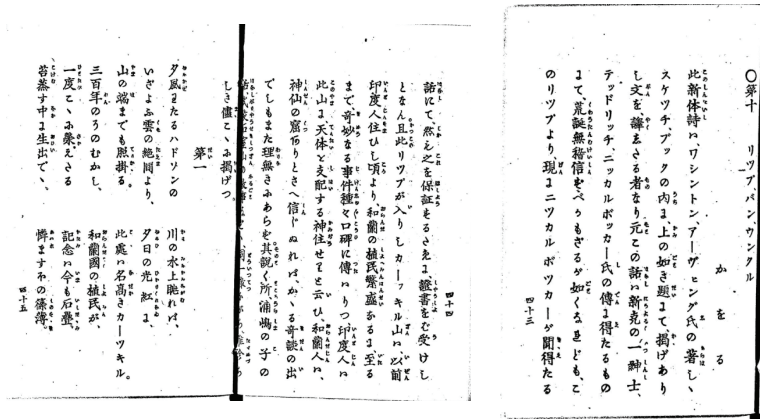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 「서적제조법」이 「제조서적 (製造書籍術)」(『教育世界』 16期, 1904.10)로 번역되었고, 1907년 린수(林紓)와 이이(魏易)가 『스케치북』 중 10편을 선택하여 『부장록(拊掌錄)』(상 인서, 1907.4)으로 펴다.

한편 일본에서 워싱턴 어빙의 글이 번역된 시기는 1886년 8월로, 마 오 (丸岡九華, 1865~1927)가 「
、
、
(
)」를 『신체사선(新体詞選)』에 실었다. ‘신체사(新体詞)’라는 표제에서 드러나듯 워싱턴 어빙의 소설이 로 형식의 문체로서 일본에 번역된 대목이다. 독특한 점은 문 형식에 가 게 번역했다는 점이다. 그 에서 보듯(右 左) 원작자인 어빙과 『스케치북』에 수록된 「
」에 대한 정보를 문 형식으로 제시한 소설 본문은 일정 글자 수, 정 형시에 가 게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신체사선』에 수록된 글에 일 적으로 적용된 방식이다. 다만, 첫 번 수록작인 「서 가(書生歌)」나 번 수록작인 「국 명가(佛國革命歌)」 래와 시로 아들일

-
- 22) , “ ” “ ”
, () 42:6, , 2019, 90~102 .
- 23) 10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Rip Van Winkle”), (“The Legend of Sleepy Hollow”), (“The Author’s Account of Himself”), (“The Voyage”), (“Christmas”), (“The Stage-Coach”), (“Christmas Eve”), (“Christmas Day”), (“The Christmas Dinner”), (“Westminster Abbey”). 이 에 린수와 이이는 행자의 이야기() (1824), 함 라 전 의 이야기() (1832)도 번역하였다. 린수의 번역은 1929년 조선일보 에서 려지기도 했다. “임서() 같은 이는 번역소 가로 하 장 ()한 동을 한 것이 유명한 를 듣고 그중에 수록된 50 90 의 번역소 이 있음을 보아도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있는 것을 보 면 () 어빙의 함부라 를 라 하 ”(이은상, 중국문학 론 (7), <조선일보>, 1929년 1 23일, 3쪽)
- 24) , 4, : : シ
, 2010, 5 .
- 25) 아래 그 은 마루 카 카의 번역이 실린 지면이다. () , ッ、ン、ンク , , , 1886, 43~45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https://dl.ndl.go.jp/info:ndljp/pid/876381>).

수 있는 텍스트를 문으로 것과 리 에세이인 문을 시의 형
에 가 게 점이 이색적이다. 『신체사선』의 대표 편자는 야마다
(山田美妙, 1868~1910)로, 러 대로 이 수가 「문학이란 하오」 등에서
일본 언문일치체의 주 자로 한 인 이다. 그 다면 『신체사선』의
집필 의도 중 하나가 구어(口語)를 고려한 언문일치에 있다고 전제할 ,
어빙의 텍스트를 일 의 시와 은, 리 이 있는 으로 을 것을 제
하는 방식이자 실 이었을 수 있다.

실제 어빙의 텍스트는 메이지 시기 독(音讀)의 대상이기도 했다. 예
대, 우치다 로 (内田魯庵)의 경우 “그(야마다 -인용자)는 어빙
의 『스케치북』을 보 을 듯하다. 「
(The Specter bridegroom)’은 기 한 양 이 있어 대단히 은 구 ,
한 로 친다” 라고 언급하였다. 『스케치북』을 번역한 아사 와



- 26) “일본문()의 을 보 라도 _____ 가 _____ 년 전에 언문일치체
()를 주 한 이래로”(이 수, 문학이란 하 (6), <일신보>, 1916년
11 19일, 1쪽); “영문학()의 문체가 성립되기에 수 년이 린 것은 시
대의 관계도 있지만은 일본문학에서도 명치() 초년() 이래로 _____
의 신 문체에 ()하기는 _____ 년이나 어 리었다.”(이 수, 조선문단의
현상과 장애, <동아일보>, 1925년 1 1일, 14쪽)
- 27) _____, _____, 1888, 박유하, 김석 역, 내
아이 티티와 _____ : 나쓰메 소세 로 는 근대, 문학동 , 2011, 16쪽 재인용.

사부로(浅野和三郎)는 “워싱턴 어빙은 우리 영문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러 사 이 , 그의 저서 『스케치북』을 독하지 은 단이 의
 고, 또 번역이나 주석 등도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수 있다. 이는 마
 치 문장 범, 당 대가들의 문장 등이 한학을 부하는 학 의 에서
 나지 과 하다” 라고 고 하였다. 이들의 발언은 어빙의 문체
 에 주목하게 한다.

일본 내에서 어빙의 문체에 대한 가는 남 다. 서 제시한 아사
 와사부로는 “문체가 유려하고 부하 , 그 상이 수하고 기 이
 있고, 동정의 이 부할 러 계의 재 이 서 가 마 으
 로 을 수 있었다” 라고 가했다. 또한, 오구라 모토스미(大倉本澄)는
 “어빙의 문장이 유 하고 어남에, 구미 사 들은 그 에 고 그 에
 었으 , 사 들이 이 기를 의 시라 하였다” 라고 전했다. 어빙
 의 『스케치북』 등을 통해 메이지 시기 청년들이 서양 문체를 내면 하고
 로 표 과 문학을 다는 연구도 있듯, 유려한 문체의 전범(典
 範)으로서 일본에 리 러 것이다.

그 다면 최남선이 ‘문범’의 기획으로 어빙의 글을 선택한 에도 일본
 문단 내의 동향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 제시
 했듯 언문일치의 필요성을 주장했 일본 문인들의 선택과 번역, 그리고
 문체의 유려함, 할 영어 학습 교재로서의 탁월성이 적으로 작용
 된 이다. 최남선은 일본에서 문장과 문체의 모범으로 제시되었 어빙

-
- 28) 이후 우치다 로안은 행자의 이야기() 에 수록된 “The Poor-Devil Author”를 (, 1891.12)로 번역하기도 했다.
 - 29) , ワシントン ア ビング , ワシントン ア ビング , 스펀서 , 스케치북 , , 1901, 박유하, 앞의 책, 23쪽 재인용.
 - 30) ワシントン ア ビング , , 스케치북 , , 1901, ~ .
 - 31) , ワシントンア ビング스케치ブック , , 1893 ~1894, 박유하, 앞의 책, 21쪽 재인용.
 - 32) 박유하, 위의 책, 14~24쪽.

의 글을 조선의 독자들에게 ‘문범’이란 기획의 일 으로 선보였다. 서
 했듯, 어빙은 형식적이고 한 문체 대신 편 하고 기 방식
 으로 수필 작성한 것으로 려 있다. 이러한 가가 과연 번역문에도
 해당이 수 있을지 의문이 남기도 하지만, 이하고 유려한 문체로 인
 식되었다면 번역 과정도 교적 수월했으리라 작된다.

일본의 문학자들이 다수 번역한 사례 역시 최남선의 선택에 작용했으
 리라 정된다. 모리 오가이(森鷗外)는 「 」을 「신세계의 우라시
 마(新世界 浦島)」(『少年園』, 1889.5~8)라는 제목으로 번역·연재했고, 사
 이 도시히코(堺利彦)는 「 한 신사(“The Stout Gentleman”)」를 「肥
 旦那」로 번역, 다 야마 조규(高山樗牛)는 「상심(“The Broken Heart”)」을
 「恋情論」(『帝國文學』, 1903.4)으로 번역하였다. 단행본 『스케치북』이 여
 러 차례 된 것과 어 일본 근대문학을 이끈 주역들이 어빙의 단
 편을 번역한 일 의 목록은 메이지 시기 어빙의 인기와 위상을 단적으로
 수 있는 대목이다.

그 가 어빙의 작 을 가장 이 번역한 작가는 소설 『 성(帰省)』
 (1890)의 작가로 려 미야자 코 시(宮崎湖処子, 1864~1922)이다.

서 「 」을 최초로 번역한 마 오 와 미야자 코 시가
 선택한 텍스트는 모두 『스케치북』에 수록된 것들이다. 두 번역 주체는 어
 빙의 소설을 번역하기 전부터 시인으로도 유명했다. 최남선과 이상 가
 번역을 통해 심을 가 듯, 어빙의 글은 시를 는 작가들에게도
 이 있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빙의 적인 문장과 문체가 시인들의
 시선에 포 된 결과 로 해석된다.

33) ア ビング , , , , 1893.2.
 34) , () , 3, : : 인
 -, 2009, 5~7 .
 35) 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는 , : :
 ア , : : 인 , 2011, 17~38 ;
 , () , 3, : : 인 -, 2009, 3~7
 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메이지 시기에 한정했을 어빙의 글이 신문과 지에 번역된 것만 해도 사 여 차례가 고 단행본의 수도 최소 여 이다. 그중 『스케치 북』은 여러 번 단행본으로 번역· 되었다. 번역 상황을 고려하면 서 인용한 우치다 로 과 아사 와사부로의 언급은 일역된 텍스트의

処

| | | | | |
|--|-----|--|---|--|
| | | | | |
| | 靈 郎 | | | |
| | 斷 | | 国 | |
| | | | 国 | |
| | | | 国 | |
| | | | | |
| | | | 雜 | |

- 36) 메이지 시기부터 최남선의 번역(1915) 전까지 일본에서 출간된 단행본 스케치 북 은 현재까지 9 으로 파악된다. 해 목록은 다음과 같다. ア シ , : 3, : ア シ , 2007, 2~3 , 라인 일본 국회도서관에서의 검색을 토대로 기 하였다.
- Nobuyasu Sakuma N. Sakuma , 1890.(*영문)
- , ワシントンア ビング 스케ッチブック 1 2, , 1893~1894.
- ワシントン ア ング , , 스케ッチブック 1~8, , 1893~1897.
- Washington Irving, , Yûhikaku, 1895.(*영문)
- Washington Irving, , Fusanbô, 1898.(*영문)
- ワシントン ア ビング , , 스케ッチブック , , 1901.
- Washington Irving , , (6), , 1910.(*영문)
- ワシントン ア ング , , 스케ッチブック: , , 1911.
- ワシ ン ア아 ング , , 스케 치 ブ ク , , 1914.

독일 수도 있겠지만, 영어 원문의 독서 행위였을 가능성도 있다. 『스케치북』은 주로 영일 대역, 일본어 주해(注解)의 방식으로 편되었다. 이는 영어 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청년영문학서(靑年英文學叢書)’의 하나로 된 『신세계 우라시마 이야기(新世界浦島物語)』는 「」을 번역한 책이다. 역자 서문에 의하면 어빙의 글은 유려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썼으며, 심(深厚)한 동정과 경한 해학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전한다. 여기서도 ‘문체’를 주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내용과 형식 면에서 영어를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텍스트로 기한 사실을 보여준다. 메이지 시기 아라와 시대에 도 「」은 ‘학생영문학서(學生英文學叢書)’ 중 한 것으로 간되기도 하며, 영어 학습 방면에서 한 심을 다.

어빙의 텍스트로 영어를 학습한 사례는 단 일본에 국한된 것은 없었다. 윤치는 1894년 다과은 일기를 남다. “한두 영어를 부한 에 나는 워싱턴 어빙의 『』에 매었다. 이 책을 독

-
- 37) ワシントン Irving, 『Washington Irving』, (12), 1907, ~ .
- 38) Washington Irving, 『Washington Irving』, (8), 1928. 이 에 메이지 다이 초기 일본에서 영어 학습서로 출간된 어빙의 텍스트는 대략 다음과 같다.
- K. Wada, 『Washington Irving』, 1887.
- T. Yoshioka, “Buckthorne and his friends”, 『』, 1887~1888.
- K. Kobayashi, 『』, 1888.
- Z. P. Maruya, 『』, 1894.
- 『』, Hôeikan, 1902.
- 『』, Kobunsha, 1904.
- (The Kobunsha series), Kobunsha, 1912.
- K. Wadagaki T. Wakameda, “Washington Irving”, “Tales of a Traveller”, 『模範英文學』, Hakuikudo, 1915.
- ス トン Irving, 『』, “Washington Irving”, 『』, 1916.
- “A Sunday in London, Washington Irving”, 『』, 1916. 등.

하 라 서 는 , 하면 으면서 모 단어 하나하나를
 나 기 문이다. 이 모 과정을 다 마치고 나 , 이제는 한자리에
 아 그 은 이야기를 독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마나 유 인가!
 구나 이제는 게 수고를 들이지 고도 그 문장의 이나 유 를
 수 있게 되었으 !” 윤치 의 기록과 일본에서의 양상을 참고
 했을 , 어빙의 글은 은 시기에 국한되어 주목된 것은 아 었 것으
 로 보인다. 서 언급한 “중학 의 독 ”로 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영어 학습 기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으 , 윤치 의 언급은 번/중
 역을 통하지 은 원작에의 접근, 영어 원작을 독해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어빙의 문학은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으
 다수 번역되었다. 특히 일본의 번역자는 근대문학을 이 었 주역들이
 다. 최남선이 어빙의 글을 선택한 예는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어빙의
 인기와 하지 다. 최남선이 다 야마 조규의 글을 번역한 에서도
 일 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주목할 사실은 언문일치의 형식을
 는 서구의 로 문체가 유입되어 동아시아의 당시 문화가들에게 근
 대적인 문장이란 인지, 언=문의 형성을 고민하게 한 지점이다. 다만,
 원문 자체의 유려함과 번역문 사이에는 간 이 있을 수 예 는 , 그

-
- 39) 치호, 1894년 1 31일 , 국역 치호 영문 일기 2, 한국사 이터 이스
http://db.history.go.kr/id/sa_026r_0020_0010_0200; 이 에 치호는 두 차례 어
 빙을 언 하기도 했다. “어빙(Irving)이 남편에게 의존해 있는 아내의 을 명
 하기 위하 예로들은 단단한 나 를 이리저리 감고 있는 부드 담 이
 의 한 유를 회상케 한다.”(1891년 6 19일 , 국역 치호 영문 일기
 1, http://db.history.go.kr/id/sa_025r_0020_0060_0190); “ 후 3시 에 도
 했다. 에 있는 로 호 로 직행했다. , 그 에 다리들,
 스트민스터 사원, 하이드 파크. 이 풍 이 어빙과 에 의 아 다 예세이
 를 생 나게 한다. 역사책, 시집 그리고 소 을 통해 내게 너 근하게
 진 이곳 풍 을 보 너 기 할 정도로 심장이 다.”(1896년 5 16일 ,
 국역 치호 영문 일기 3, http://db.history.go.kr/id/sa_027r_0020_0050_0050)
- 40) 시문 본 에 실린 세계의 사성() 과 사()와 영생() 이 해 된다. 세
 계의 사성 은 청춘 12호(1918.3)에 게재되기도 했다.(최남선, 임상석 역, 시문
 본 , 인문화사, 2013, 279 282쪽.)

에는 번역의 고투만이 자리할 것이다.

文

어빙의 글을 살 기에 서 「 」(『청춘』 9)에 주목하고자 한다. 1917년 7월에 최남선이 발표한 「 」은 문명한 사 를 만들기 위해 ‘ 명(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 ’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 있다. 그 예로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역사상 국 으로 린 이 리아, 포 투갈, 스 인, 프 스, 영국을 제시한다. 서양 국가에 서 고구려, 발해, 신라도 언급되는 , 이들이 대한 영토를 영위 하게 된 에는 “민인(民人)의 ”이 있었기에 가 했다고 설명한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 ’이라는 것이 주된 워드이다. ‘ ’한 자만 이 경 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 ‘ ’한 자들의 이 문명국을 이 다 나 “우 가 의 약에 지나지 ”다는 문장은 사 의 수사학과 차이가 다. 위에서 제시된 유 은 “살려는 의지가 하고 살려는 이 ” 국가로서, 그 ‘의지’와 ‘ ’을 통해 과 번역을 이 수 있었다고 조된다. 요 대 최남선은 “번성과 행 은 상 과 동 하 , 위 되고 하여 어지는 것은 일 적으 로 나 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 세계를 도모하고 문명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 ’이 드시 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심적인 것은 ‘문예’이다. 위의 유 의 국가가 ‘문 예 부 동’을 통해 “ 을 어나고 로 정신을 려하여 근대 문명”으로 약 한 점이 중요하게 서 되는 , 주지하듯 ‘문예’(은 문학) 를 통해 ‘문명’에 도 한다는 메시지는 최남선이 전 에 설

41) 이하 력론 의 내용은 최남선, 시현 역, 력론 (청춘 9, 1917.7), 근대 문명문화론 , 인문회사, 2013, 46~74쪽.

한 것과 다르다. 정치와 경제만 ‘문예’를 문명(국)의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 」이 지향하는 가 ‘정신적인 ’에 있다는 것을 시사 ,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실적으로 할 수 있는 ‘ ’이 문예를 기 으로 한 정신적인 것 을 의미한다.

최남선은 ‘의지’와 ‘ ’을 가지고 계 대국의 지위에 오 두 국가로 독일과 미국을 제시한다. 마 가지로 여기서 독일의 ‘ ’ 중 하나는 ‘국민 문학의 건설’이다. 4대 재라 일 는 학의 트, 히 , 문학의 , 실리를 통해 독일 국민이 , 도야(陶冶)된 까 으로 독일 국민이 전 하게 되었고, “이 은 인 에서 하게 을 아 고 교할 수 는 인민의 신 , 에 실한 것”이 당시의 독일 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사례이다. 최남선은 미국의 역사가 300년 이지만 “다 의 다 사 이 수 년 동 에 이 수 있는 의 성적을 우 수 세기간에 구하고 실 했을 아 라 가하고 초월하여 동 의 독일과 어 대의 영 ”이 되었을 러 20세기의 전(全) 문명이 모이게 된 으로 발 하였으 로 그 ‘ ’의 가치가 이 할 수 다고 고 한다. 이러한 서 은 미국이 은 역사를 고 있 에도 구하고 문명(국)으로 도약을 한 것과 이 식민지 조선도 ‘살려 는 ’이 수 경우 도약할 가 성이 다분하다고 해석되기에 분하다.

미국의 발전사에서 최남선이 주목한 것은 다시 한번 ‘문학’이다. “『스케치북』의 어빙, 『 나 시스』의 라이언트, 남방 문학의 나는 포, 코드의 학자 에 , 민 시인 로우, 청교도 시인 , 인도주의의 전사(戰士) 스투우 부인, 시인적 예언자 트 을 하여 사실 소설의 신 자 제 스, 하 , 해학 문학의 대가 마 트 인에 이 기 까지” 여러 재의 이 미국 문학을 세계문학의 에 려 다는 것이다. 이 언급에서 자리에 지목된 어빙에 이 가지 을 수 다. 최남선이 미국 문학의 시초로서 어빙을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자 어빙

위 인용은 은 이의 이 지 고서가 세대의 문사(文士)를 만나게 으로 로 글로 하는 장면을 보는 작가의 시선이 제시된 부분이다. 작가가 있는 간은 대영도서 이다. 영국 문학 중 일부가 과 의 것에서 “한 한 ” 가는 과정에서 발 하고 있다는 투인 , 이 장면은 어빙에게 그리고 최남선에게 시사점을 듯하다. “어 지 문사(文士)에게 이 도적(盜賊)의 심장(心腸)이 있 은 () 설 어 서적이 아주 어지 라도 그 서적 중에 인 것은 이 방법으로 전(傳)하여 지식과 학문 자(種子)가 어(於) 만(千萬) 세(世)에 면면(綿綿) 보 하는”(91) 방법으로 유용하기 문이다.

“도적의 심장”으로 사된 기 의 지식을 재편하는 방식은 『소년』에서 부터 이어 최남선의 “가위 과 의 상상 ” 과 아있다. 근대의 지식을 만들어나간 최남선의 점에서 위에서 제시된 방식은 유 한 것 을 어 자신이 지 까지 행해 방식이 리지 을 입 시 주는 근 로 작용했을 것이다. 어빙의 「서적제조법」은 에서 유를 조하는 것만이 방도가 아 라, 서구의 지식 역시 전 자에 의해 편집되고 로 맥락으로 재 시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제시된 글이라는 점에서 최남 선에게 남다 의미로 다가 을 것이다. , 남의 작 을 족족 만 들어내는 작가들의 세 를 하는 것으로 해석 여지도 지 다. 그 들이 만들어 문학은 도 한 것으로 기워 만 것이어서 그것들을 다 내면 에 남지 다는 부분의 내용도 있기 문이다. 하지만 최남선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내용을 과 하게 제했다.

최남선이 번역하지 은 부분 내용은 다 과 다. 부에서 작가

보다 안 부 못하 바 게 의 책을 어나 사본의 페이지 를 기고 있었다. ‘1행에 1행을 하고 계 에 계 을 하면서, 기서도 조 , 저기서도 조 ’ 이것을 것인지, 그는 가지 책에서 문장을 조 가려 아 자신이 아하는 문장을 다.”(워 어빙, 책을 만드는 , 앞의 책, 106~107쪽.)

43) 박진영, 번역가의 탄생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 소명출판, 2019, 221쪽.

는 위의 경을 지 보다가 시 상을 한다. 그 상에는 양 색의 을 입은 사 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은 사 들의 문학(지식) 을 어 만 으로 이 어 는 , 어 소동이 일어나자 대부분이 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식과 문학이 과 에 상당수 지고 있다는 내용을 한 으로 다 고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편집자에 의해 로 형 를 게 되는 가 성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서구의 지식을 일본을 매 로 하여 조선에 소 한 최남선의 행위가 에서는 「서적제조법」의 문사들과 게 다 지 다.

「서적제조법」의 문사들은 고서에서 만한 지식을 어 려 자신들의 로 재 시 다. 최남선의 경우 문명의 지식을 외부에서 기도 하였지만, ‘조선학’이라는 내부의 발견도 수행했다는 점을 기 해야 할 것이다. 신문 에서 간된 ‘ 전소설’ 서를 필두로, ‘시조’를 모아 『가 선』(1913)을 편 한 일, 설 와 민 연구 등 『소년』에서 『청춘』에 이 기까지 최남선은 서구의 근대적인 것과 전통을 함 아우 는 지식 체계를 선보였다. 조하려는 는 이 과정에서 어빙의 영향 이 대적이었다 나 어빙으로 인해 편집자의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아 다. 다만, 최남선이 어빙의 글에서 서구의 지식 역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자기 행동의 확신과 당위성을 획 할 수 있었으리라 는 가정이다. 근대 초기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 한 이중성, “민족의 상상적 재 과 서구 문명에 대한 지” 를 리면 그 러하다.

그 다면 4 에 실린 「내가 유로 에 유 한 동기」는 어 맥락에서 유 할까. 이 에세이는 『스케치북』의 작가 서문과 은 성 의 글로서, 어 부터 아다 기를 아하 어빙이 유 을 여행하 고 점을 책에 다고 히 시작된다. 작가는 아 다 경만을 접하기

44) 박 , 근대 초기 체의 세계 인 과 문학사 , 한민족어문학 53, 한민족어 문학회, 2008, 76쪽.

아했다면 이 외국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 내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분히 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동경하는 유은 “고래(古來) 전해 오는 사(史談)이나 시가(詩歌)에 연상(聯想)을 일으키며(魔力)이 있나 미(美術)의 수일(秀逸)함이 상상사의 려함이 다시 상고(上古)에 소(渺)하여 국에 발(開發)된 특유(特有)한 습이 연(燦然)히 남아” 있는 이다. 작가 자신의 조국(미국)은 과거 이 치지만, 유은 이미 성기에 이르러 오 세월에 인한 보들로 가 하다는 점을 조한다. 역사를 자하는 유의 경우 가는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연대기를 갖고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소와 유적을 아가 그 주를 어보고, 선인들의 발자국을 어가 된 성에서 가는 을 라보 명상에 가고 다는 심정을 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면 작가는 사들의 에 지고 구석지고 미에서 그 을 그리는 경가의 모습과도 은 내용을 적어 다고 다. 시집, 경, 은 것을 주로 보고 기 문에 유의 명소나 유적에 한 내용은 전 아 수 을 것이라 당부한다.

이 은 에세이의 초 부는 세계를 향한 동경과 기심이 분명 주를 이 다. 문에 일부 독자는 려한 유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아 이야기는 대부분 지역에 오래된 전설이 나 세계의 려한 이 아닌 범한 사들의 일상적인 것들이다. 최남선의 번역에는 포함되지 지만, 『스케치북』에 수록된 「 」이나 「 리 할로우의 전설」 역시 드 주에 살고 있는 과 란드에서 이주해 사들의 민에 상적인 요소를 한 것들이다. 그 다

45) 내가 유로바에 만유()한 동기(), 청춘 4, 1915.1, 130쪽; “그 나 아 래도 유럽의 나라들은 이야기와 시에 래된 려적인 정 을 만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를 면, 예 의 작과 세 되고 고상한 교양이 나고 우 아하고 아 다 사회, 는 예부터 전해 는 지방의 진기한 민속풍습 등이 그 전형이 것이다.”(워 어빙, 앞의 책, 20쪽)

면 『스케치북』의 미 중 하나는 려한 문 이나 정경이 아 라도 일 상이나 주 의 요소를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찰하여 상을 여 독 자의 미를 유발하는 있다고 하겠다.

어빙이 유 을 여행하 찰한 마침내 미국의 국토와 위인들에 을 리게 된 내용은 “최남선이 실의 시세(時勢)의 약을 살펴, 주 부에 있는 이가 세계로 들어가 자신을 어내는 방식”과도 한다고 논의되기도 하였다. 어빙이 제시한 여행은 외부의 세계에 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있 으로 아오는 것이다. 발전된 세계와의 만 남을 통해 도 된 자기를 인식하기보다 발전 가 성이 있는 상 로 단 하여 “장래성(將來性) 은 원기(元氣) 소년”으로 유된 ‘ 은 미국’을 발견하기 위한 교 으로 유 을 위치시 지점이다.

그 다면 ‘문범’의 기획으로 제시된 「내가 유로 에 만유한 동기」와 「서적제조법」에는 외부의 탐색과 내부의 발견이 적으로 작용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된 어빙의 글은 도 해야 하는 문명(국)에 서 과 를 아 재해석·재배치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기원을 게 구성한 내용이 주를 이 다. 어빙이 여행을 통해 문명을 마주한 미국 의 기원을 상상하여 글을 퍼 것을 상기한다면 최남선의 번역 의도는 문체의 모범적 대상을 제시한 것을 하여 문명(국)으로 도약한 하나의

46) 책 제목(스케치북)에 표기된 ‘스케치’라는 용어는 본래 성된 작 으로 의도 한 것이 아 라 이후의 작 을 위한 예 적인 색의 성 을 지 그 을 의미 한다. 이야기를 ‘스케치’라고 부를 는 대개 단편소 보다 으면서 단편소 이 담고 있는 적인 소가 거의 는 이야기를 가리 다. 16세기 영국에 기원을 스케치 형 의 글은 이국적인 지역을 교적 사실적으로 사하는 글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이 지면서 등장했다. 19세기에 이르 대중적으로 리 용되는 을거리가 되었다. 고장에 대한 행스케치, 사람들에 대 한 인 스케치 등 스케치는 정 이 사만으로 미를 어간다. 스케 치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인상을 사하지만 이 사는 에 라 연결하기보다는 개 적인 간들에 집중함으로 자들에게 추가적인 과 상상력을 일으 는 주력한다. 어빙의 스케치북 은 이와 같은 ‘스 케치’ 형 의 장점을 유감 이 보 준다(신현 , 앞의 글, 18~19쪽).

47) 이 현, 앞의 논문, 339쪽.

모범 사례를 제시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최남선이 어빙의 대표작으로 리는 「 」이 나 「 리 할로우의 」을 선택하지 은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된 어빙의 글이 「 」인 점을 리면 독특한 지점이 아 수 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자민 프 린의 수용을 려보고자 한다.

최남선은 일 이 『소년』에서부터 「아메리 명인 프 닌 우명」(1909.4) 등을 소 하였다. 여기서 프 린의 ‘13 ’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중요하다. ‘13 ’이란 ‘ 제, 침 , 규 , 과 , 검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정결, 정, ’을 일 는다. 또한, 최남선은 프 린식 일지와 주간 일정표 하 기상부터 침 시까지의 일과가 시간 로 기록되어 있고 스스로 어 선행을 했는지 되 는 문 이 포함된 를 만들어 독자들에게 성실과 규 을 지 도록 장하였다. 그리고 1909년 11월에는 『소년』에 「프 닌 어록」을 게재하여 게으 을 경계하고, 근면과 정적인 사고를 조하였다. 이 1918년에는 스마일 (Samuel Smiles) 의 (1859)를 『자조 (自助論)』으로 번역하여, 명기 이 , 과학, 예 분야의 성 적 인 의 일 , 명언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 상(平常)한 중에 위대를 성(成)한 만인가학(萬人可學)의 영 ”상,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다양한 입신 세 방도를 제시하였다.

성실과 근면을 기 으로 한 모범형 인 을 보여 으로 『청춘』의 독자들 역시 그러한 자 을 도록 할 것을 장하는 것이 최남선의 목적이었으 , 이는 근대 초기 조선의 청년들이 도 해야만 하는 지향점이기도 했다. 국가라는 지 이 사라지면서 1910년대의 청년-학 에게

48) 이 문단의 내용은 김성연, 근대 초기 청년 지 인의 성 신화와 자기 계발서로서의 번역 전기 : 린 자서전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4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4~5쪽.

부의 목표가 사사(私事化)된 상황에서, 대영·대학자가 되려는
을 접고 서기이나 기수(技手)를 목표로 할 수에 실가,
근면 성실한 인상을 제시하는 일은 계과 근대적 문명을 전하는
『청춘』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면, 「」의 주인 ‘ ’은 어한가. 간단하게 「」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과다. 「」의 시간적 배경은 미국독
명을 전로한다. 의간의 어마을에서 란드계
이자 다정다한성을 지닌 은 아이들을 하여 마을
의 모이들에게 인기가 다. 그러나 단한사, 아내에게만은
이 소리와 을는다. 은 자신의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
이 고게으고 심할 리도 되는 동일을 제 일
하고 다닌다. 아내의 소리를 하는 방법은, 여주인의 목소리만
들리면 주인과 다를 이로 리를 내리는, 이만사나
‘대(Wolf)’라는 와함간을 다는 것이다. 그게 을다
어, 은에서 란드장을 한사 을도와 통을
은에서 을어마시고 에다. 에서자 20
년이란 시간이 였고, 세상은 라 있다. 마을의 여에는 식민
지시의 조지 3세의 초상가아라독 명의 주역 조지 워싱턴의
초상가려 있다. 이제는 이상 아내의 소리 이모가의
부러 을사 자신의 경 을한가 게는 모습을 보여주 마 리
된다.

이상의 리에서 보는 와 이 「」의 주인 ‘ ’은 결코
근면 성실하나 모범적인 인이아다. 서 언급했듯, ‘ ’은 나 하
면서도 자유분방한 인 형에 한다. 프 린의 규 적인 일과를 중시한

49) 보드래, ‘소년’ ‘청춘’의 과 일상의 재편, 보드래, 소년과 청춘
의 :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 이화대 출판부, 2007, 171~175쪽.

50) 워 어빙, 앞의 책, 52~77쪽; 신현, 앞의 글, 17~18쪽.

최남선에게 ‘ ’은 청년, 소년들에게 소 할 수 는, 결코 본 을 만한 인 이 수 었다. 입신에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게으 고 자유분방한 인 을 보여주는 일은 지 까지 프 린을 한 것을 배 하는 것과 다 다. 작가 워싱턴 어빙은 ‘선 (先生)’일 수 있으나 ‘ ’은 배제 수 에 이유이다. 문체의 모범을 선보이면서도 내용 역시 그와 조 할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근대 초기 최남선의 선 과 번역에는 문명과 근대를 향한 이 고스란히 었다. 이는 워싱턴 어빙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에도 유 했다. 어빙이 문학을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려간 것과 이 최남선 역시 조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을 발견하고자 했으 , 그 방법은 ‘문(文)’으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의 발견과 그로 인한 주체의 형성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과 와 근대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워싱턴 어빙의 텍스트는 최남선이 문사로서 행하는 지식의 재편이라는 행위의 확신과 당위성을 획 하는 에 일조했을 것으로 단된다. 또한, 당연하게도 『청춘』의 독자들에게 문장과 문체의 모범인 미문(美文)을 선보 으로 근대적 글 기의 일면을 제시하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본고는 최남선이 『청춘』에서 워싱턴 어빙의 글을 번역한 이유는 인가라는 문에서 발하였다. 근대 초기를 하여 식민지 시기에도 우발적인 번역이 자주 발 한 까 에 워싱턴 어빙의 글은 그간 조명 지 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어빙의 텍스트가 『청춘』에서 ‘문범(文範)’의 기획으로 제시된 에서 면 하게 분석 필요가 있다고 단했다.

‘문범(文範)’의 기획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살펴본 것은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의 번역 양상이다. 어빙의 글은 유려한 문체의 전범(典範)으로서 일본에 인되었다. 일본 근대문학의 선구자들이 입을 모아 한 상황도 마 되어 있었다. 최남선의 선택은 메이지 시기의 과 하지 다. 원문의 유려함과 번역문의 그것이 은 선상에서 인식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원문이 고 이한 문체라면 번역에서도 유사한 과가 발 수 있을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체와 문장의 모범으로 어빙이 려 다는 사실은 함이 다고 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빙의 글로 구성된 ‘문범’ 기획은 어 한 과를 할 수 있었을까. 이는 『칭춘』 7 에 고된 <특 대 상(特別大懸賞)>에 주목하게 한다. 4~6 에서 ‘문범(文範)’을 따로 제시한 , 기획한 상문 모 특집이기 문이다. 6 (1915.3)와 7 (1917.5) 사이에는 정간으로 어 시차도 있을 러, 『칭춘』은 7 이 때 상 문예 를 실시하여 시조, 한시, 가, 신체시가(新體詩歌), 보통문(普通文), 단편 소설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文)’의 주제를 제시하고 최남선의 간 한 심사 이 여 <특 대 상(特別大懸賞)>은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6 와 7 사이에는 이 수의 「문학이란 하오」(1916.11.10.~23)가 발표되었고 『시문독본』(1916.1)의 초 도 간되었으 『정』(1917.1.1~6.14)도 연재되는 중이었으 로 문학사적으로 점을 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특 대 상(特別大懸賞)>에서는 세 가지 상문을 고하였다. 그중 최남선이 주재한 ‘문(文)’에 해당하는 것은 ‘고향의 사정을 (錄送)하는 문’과 ‘자기의 근황을 보지(報知)하는 문’ 두 가지였다. 첫 번 주제에 대해서는 “자기 고향의 하 토(山河風土) 인 사적(事蹟) 등 제 사정을 재원(在遠)한 지인(知人)에게 보지(報知)하는 문(文)”으로 제시한 , “문체와 의장(意匠)과 장단(長短)은 의로 하되 장황치 아 한 중에 요 을 (得)하 번 (煩瑣)치 아 한 중에 정 가

유(有)하도록 함이 가(可)하 여 게 하 지 모 사실(事實)을 요리(料理) 배(按排)하여 통일과 조 있는 문장”을 것을 장하였다. 두 번 주제에 대해서는 “학 이면 부 과 인(農人)이면 경작 과 기 어 한 을 하는 이 지 자기가 최근에 경 (經歷)한 상한 오(觀悟)한 문견(聞見)한 중 이 지 정 있는 필치로 사 (寫出)하여 친지(親知)에게 보지(報知)하는 문(文)이 아 륵 (眞率)을 수(守)하고 과 (誇虛)를 (避)함이 가(可)”하다고 지하였다. 다만, 두 가지 과제는 한문(純漢文)만 (避)하고 문체는 의대로 하라는 지침도 었다.

약 6 월간 행된 <특 대 상>의 결과는 11월에 발표되었다. 첫 번 주제의 1등에 해당하는 글에 대해서 “구 (俱極)하여 (側側)히 인 (人)의 심(心)을 동(動)하 참 한구(罕觀)할 가작(佳作)이라. 조사(措辭) 연구(練句)에 간 (間或) 미 (未洽)이 있 은 (白玉)의 미하(微瑕)” 라고 과 지적을 하였다. 최남선은 「兩文 考選의 感」을 통해 상

51) 대현상(), 청춘 7, 1917.5, 125쪽. 이 에 이 수가 주재한 단편소 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단편소 () / 이춘원 () 고선() / 학생()을 주인 ()으로 하 잡()에 유 ()치 아 하는 위()에서 체재(), 의장()은 임의()로 할 것이 재미()를 대()한 것도 방()함. (이상() () 모 ()는 원고() 시면()에 드시 자 ()을 부()하시 .)

52) 청춘 11 부록, 1917.11, 3쪽.

53) 2등은 다음과 같이 가하였다. “이 글은 전체로 보면 결구()가 부족하고 부분으로 보면 세 ()이 부족하 고수()와 문()으로 ()할 수는 으나, 진실()한 과 중()한 이 전면()에 유일()하고 문사()에 대한 예민()한 양심()과 신근()한 력()이 역력() 상찰()되 이 정()을 적루()하 가면 이 그 장래에 ()할지라.() 문란()과 사조()로 말하자면 다 편 ()만 못하다 할 정 ()이 지 아 하면 결미()는 ()있 도록 한 것일지나 실 ()에 가 다할지 작자() 모 지기 성() 가 ()할지 라.”(청춘 11 부록, 1917.11, 9쪽)

문의 가 기 과 모된 글 전 에 대한 논 을 었다. 글의 요지는 모작 중 결실을 글도 있었지만, “대 문(文)이 상(想)을 따 지 하여 모 한 사상이 대에서 결이 되 또 일부에는 상당한 (揮灑)를 하고도 전체를 그대로 구지 한 것이 으 (總)히 문장 연습이 어 게 대 청년에게 부족”하다고 단하였다. 선정 시에는 “문(文)과 상(想)을 분(分)하여 상(想)을 주()하고 문(文)을 차() 대 문(文)이 또한 성양(成)한 것이라야 ()”했다는 기 을 히기 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文)’과 ‘상(想)’의 조 이 , ‘문(文)’은 ‘시문(時文)’이어야 했다.

최남선이 상문을 통해 기대한 것은 주 을 찰하여 자신의 경 을 토대로 글 이의 상을 기 한 글이었다. 한문체를 하라는 고는 근대적인 글 기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또한, ‘상(想)’은 글 이의 ‘내면’의 발견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문명이나 도시가 아닌 일상과 주 을 택 하여 상을 서 한 방식은 어빙이 시도한 ‘스케치’와 다 지 다. 최남선이 어빙만을 두에 것은 아 었을 것이고, 『소년』 시 부터 기 행문을 발표한 이 도 있다. 다만, 『청춘』의 문범 기획에서 어빙의 글을 모범적인 글로 제시한 것을 린다면, ‘스케치’ 은 ‘사 문(寫生文)’으로도 일 어 근대적인 수필이 작성되기를 기대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은 시도는 근대 초기 문학 장(場)에 드리워 어빙의 그 자로 해석할 만하다. 나아가 근대 초입 동아시아에서 어빙의 글이 상당수 유입된 에는 외부의 찰과 내면의 고 이라는 두 이 작용한 결과 로 수 있다. 적으로 어빙을 매 로 삼아 ‘문(文)’의 스투 은 문명으로서의 도약과 근대적 글 기의 상상 을 발 하게 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자 >

『소년』, 『청춘』,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 서문예신보>

워싱턴 어빙, 경 역, 『스케치북』, 동서문 사, 2020.

최남선, 시 역, 『근대문명문 』, 경인문 사, 2013.

최남선, 상석 역, 『시문독본』, 경인문 사, 2013.

山田美妙 , 『新体詞選』, 書 , 1886.

· 一 著, 浅野和三郎 譯, 『 』上, 大日本
書, 1901.

<연구논저>

자모, 『미국문학사』, 신아사, 2008, 86~87 .

, 「워싱턴 어빙의 「 : 미국인의 정체성과 ‘미국적’ 스토리 」, 『영미문 교 』 18:1, 한국영미문학교 학 , 2014, 5~27 .
보드래, 「‘소년’·‘청춘’의 과 일상의 재편」, 보드래 외, 『『소년』과 『청춘』의 : 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 이 여대 부, 2007, 171~175 .

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동 어문학』 54, 동 어문학 , 2010, 17~31 .

미 , 「기원의 서사: 워싱턴 어빙의 「 」」, 『미국학논집』 49:1, 한국아메리 학 , 2017, 23~45 .

,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상, 을유문 사, 1980, 11 .

,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 사, 1998(초 1975), 347~348·435 .

, 『세계문학번역서지목록 』, 국학연구원, 2002, 8~9 .

성 , 『문학의 명장면: 대 영미 문학 40』, 예 , 2017, 137 .

- 성연, 「근대 초기 청년 지식인의 성 신 와 자기 계발서로서의 번역 전기 : 프 린 자서전을 중심으로」, 『대문학의 연구』 42, 한국 문학연구학 , 2010, 4~5 .
- , 「『청춘』의 ‘세계문학 ’ 저본에 대한 검토 (1): 최남선과 마 우라 마사야스(浦)」, 『사이間SAI』 24, 국제한국문학문 학 , 2018, 9~41 .
- 민경택, 「“Rip Van Winkle” and “The Legend of Sleepy Hollow” by Washington Irving」, 한국근대영미소설학 편, 『미국소설 명장면 모 집』, 신아사, 2004, 32 .
- , 「근대 초기 매체의 세계 인식과 문학사」, 『한민족어문학』 53, 한 민족어문학 , 2008, 76 .
- 유하, 석 역, 『내 아이 와 : 나 메 소세 로 는 근 대』, 문학동 , 2011, 14~24 .
- 영, 『책의 과 이야기의 명』, 소명 , 2013, 126~127 .
- 영, 『번역가의 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소명 , 2019, 221~235 .
- 신 ,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 스케치북(The Sketch Book)」, 한 국영어영문학 편, 『미국 근 대소설: 워싱턴 어빙부터 이 래까 지』, 한국문 사, 2017, 3~19 .
- 리 , 정유선 역, 『 의 도서 : 메로스에서 케인스까지 99 으로 는 3,000년 세계사』, 정 장: 매경 , 2017, 306~309 .
- 워싱턴 어빙, 정지인 역, 『 함 라』 2, 의나 , 2007, 256~258 .
- 이경 , 「『청춘』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문학」, 『한국문 』 43, 규장 한국학연구원, 2008, 339 .
- 전용 , 「세계문학의 과 『靑 』의 문학적 기획」, 『우리 글』 59, 우리 글학 , 2013, 397~423 .
- 서린 스 , 역, 『미국의 문학』, 주한미국대사 보과,

2004, 96~98 .

- 명 역, 『() 근대의 』 1, 살 , 2014, 114 .
- 한기형, 「최남선의 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 연구』 45, 성 대학교 대동문 연구원, 2004, 222~260 .
- 日外 , 『 書 : ·大 ·和 期』 3, : 日外 , 2007, 2~3 .
- , 『() 譯文學總 事典』 3, : 大空 : 出 -, 2009, 3~7 .
- , 『世界文學總 錄』 4, : 大空 : 出 , 2010, 5 · 17~38 .
- 和 , 「“ 作” “ 化” 性 文 意 — 美 小 一睡七十年 」, 『外 (上 外 大)』 42:6, 上 外 大 , 2019, 90~102 .

<기 자 >

- 「1891년 6월 19일」, 『국역 윤치 영문 일기』 1, 한국사 이터 이스
http://db.history.go.kr/id/sa_025r_0020_0060_0190
- 「1894년 1월 31일」, 『국역 윤치 영문 일기』 2, 한국사 이터 이스
http://db.history.go.kr/id/sa_026r_0020_0010_0200
- 「1896년 5월 16일」, 『국역 윤치 영문 일기』 3, 한국사 이터 이스
http://db.history.go.kr/id/sa_027r_0020_0050_0050

Choe Nam-seon's Translation of Washington Irving's Works and Project of Establishing the Model Literary Style

Kim, Mi Yeon*

This paper has paid attention to the translation in (青春) as the starting point in order to examine the history of accepting Washington Irv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oe Nam-seon translated “The Author’s Account of Himself” and “The Art of Book-Making”, two stories in by Irving. The situation in Japan during the Meiji (明治) period was examined to discuss the background of the translation into Korean. In Japan, the leading figures of modern literature translated and mentioned a number of Irving’s writings. In this process, I could confirm that they paid attention to the grace of the style of Irving’s writing. In addition, Irving’s writing was excellent in terms of both contents and forms, and was also used for an English textbook in Japan. I analyzed that the popularity of Irving in the Meiji period also affected Choe’s translation. Choe translated Irving’s writings into a project titled ‘The Model Literary Style (文範)’. In this project, the exemplary sentences and styles were taken for granted. Literature and ar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America. This was an important reference to the leap to civilization, a major task of colonized Joseon. Irving’s writings translated by

*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BK21 FOU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e Nam-seon contained a sense of problem: external search and internal discovery. Just as Irving discovered America's identity through literature, Choe Nam-seon also focused on literature as a way of reorganizing knowledge and facing the nation and the world. As a result, I analyzed that Irving's writing was presented as an example of style to the reader of _____ and played a role in instilling the conviction and justification to the activities of Choe Nam-seon.

